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면담가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일(금)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의장실에서 이부영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농연과 한여농 중앙임원들과 이부영 의장, 그리고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 정장선 의원이 함께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산물 협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들어간 이상 쌀 협상을 안할 수는 없다”면서 “높은 생산원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전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고, 농민들의 협상과정 공개요구와 관련해서는 “관세화 유예를 이뤄내려면 그에 따른 양보가 불가피한데 일일이 전략을 노출한 채 협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열린우리당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점도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9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농연과 한여농 중앙임원들과 이한구 의장, 이방호 의원, 김영덕 의원, 최경환 제4정조의원이 함께했다.

이 면담에서 이 의장은 한농연의 요구안과 한나라당의 농업정책이 거의 흡사하며, 한나라당은 의견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특위와는 달리 농해수위는 여야가 정책의 대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농연의 요구안을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진은 각 당과의 면담에서 △쌀 관세화 유예 관철 및 추가개방 저지 △쌀 자급기반 확보 및 쌀 산업 발전방안 수립 △목표소득 지지제도 및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정기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 완료 및 총체적인 농협 개혁 추진 △청소년 건강향상 및 국내농산물 수

급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도입 △우량 농업생산기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법 및 농지제도 개편 △농업관련 각종 기금의 무분별한 통폐합을 철회 등 주요 농정현안 8가지를 요구했다.



산하연합회 소식

경북·전북도연합회 '화합 한마당 대회' 성료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을 위한 '영·호남 농업경영인 화합 한마당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박노옥)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임선택)임원 및 시군 회장 및 전직 도회장 등 50여명을 초청해 경주시 현대호텔과 보문단지 일원에서 '영·호남 농업경영인 화합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한농연경북·전북도연합회에서 150여명의 선도 농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대회는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 지역 간 선의의 농산물 품질 경쟁을 벌이기 위한 우수농산물 비교전시회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치러져 지역을 넘어 영·호남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이 됐다.

박노옥 회장은 "정치적 지역 나누기 논리로 왜곡되어 왔던 영·호남 지역의 농업 교류와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임선택 회장은 "영·호남 농업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 촉진 행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각 시군연합회, 지역 국회의원에 서약서 받아

한농연 각 시군연합회가 지난 4일을 국회의원집중방문의 날로 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주요

농정 현안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서약서를 받았다.

한농연은 17대 국회가 초선의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구가 축소되어 16대 국회보다 농업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적고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역구의원 면담을 통해 18대 농업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17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약서에 서명한 의원은 이규택, 안상수, 허천, 이계진, 최연희, 박세환, 김양수, 김용갑, 박희태, 김영덕, 김기춘, 권경석, 김양수, 임인배, 이상배, 김재원, 김태환, 김성조 이상 한나라당, 이철우, 신중식, 유선호, 정세균, 강봉균, 복기왕, 이시종, 김우남 김재윤, 박홍수 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 한화갑 이상 새천년민주당, 김학원, 김낙성 이상 자유민주연합, 권영길 현애자 이상 민주노동당, 무소속의원인 신국환 등 총 36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쌀 관세화 유예관철, 쌀 시장 추가개방 반대, 국영무역 유지 및 수입쌀 식용 판매금지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관철, 추곡수매제 유지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시행 △농협법 연내 개정 및 총체적 개혁과제 추진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 등이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농민단체대표단 예방

지난 3일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단체대표단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부영 의장을 비롯하여 정장선 비서실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박홍수 의원과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성도 전농대회협력실장, 윤금순 전국여농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차장, 정재돈 한국가톨릭농민회장, 정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제 막바지 협상단계에 있는 정부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농해수위 위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으로 대표단을 맞았다.

쌀 문제와 관련해 안병엽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어떤 것이 실질적이고 장래를 위하고 실리적인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쌀을 통한 소득보장” 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이 의장은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농업인의 날 전후에서부터 11월 15일 경까지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정책협의를 공청회가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실무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농민단체 측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양정제도 개편 △추곡수매가 4% 이하안의 문제점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개혁 △농지제도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농가부채대책 수립 △축산업 등록제 유예와 낙농진흥회 문제 △정당, 국회, 정부, 농민단체 간 일상적 정책협의 틀 마련 등 ‘농정현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전국농민회, ‘쌀 개방 반대’ 단식농성 돌입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부는 지난 1일 오후 쌀 밀실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13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전에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백지수표와도 같은 쌀협상을 연내에 마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이에 강력한 투쟁의 지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은 “정부가 밀실협상을 벌여왔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결국 국민들의 운명을 외세에 내 맡기려 한다”고 지적하고 “쌀 개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싸워 우리 쌀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쌀 개방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투표를 통해 쌀 개방에 대한 국민의사를 물으라”고 주장했다. **민농연**



(지난호(10월호) 퍼즐게임 정답)

1 농	2 경	3 개	4 도	5 국	6 영
7 자	8 유	9 화	10 체	11 무	12 허
13 양	14 전	15 마	16 권	17 처	18 가
19 매	20 허	21 조	22 금	23 리	24 상
25 관	26 세	27 화	28 농	29 지	30 농
31 가	32 계	33 도	34 정	35 가	36 부
37 임	38 무	39 임	40 농	41 림	42 부
43 소	44 교	45 역	46 경	47 매	48 사
49 채	50 소	51 채	52 소	53 채	54 소

▶ 당첨자 : 경기도연합회 전영철